Daishin 증권

2026년 04월 17일 금요일

Morning Meeting Brief

Strategy

[다음주 시장은?] 종전 방향성 확인. PER 8 배(6,600 선)을 향하는 KOSPI

- KOSPI, 지정학적 리스크에 가려졌던 실적 반영 중. 선행 PER 8배 = 6,600p
- 한편, 21일 공개되는 한국 20일 수출도 주목. KOSPI 일평균 수출 금액과 KOSPI 간의 상관관계 0.7 이상
- 이번주는 본격적인 실적시즌 돌입. 특히, 23일 공개가 예정된 SK하이닉스 실적 결과 중요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퀀틴전시 플랜] 코스피 33 거래일 만에 6,200 선 회복, 위험자산 선호 확대

- 지정학 리스크 완화와 금융 불안 우려 진정 속 위험자산 선호 강화
- TSMC 호실적과 AI 수요 기대감으로 반도체 투자심리 견조
- 위험자산 선호심리 확대되는 가운데, 업종별 순환매 양상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Global Strategy

[THE GLOBAL 주간 증시 전략 / 4 월 4 주차] 굿바이! 전쟁. 미국 증시가 견인하는 안도랠리 국면

- 현 미국-이란 종전 합의 수순. 21일 전, 트럼프 종전 공식 발표할 것. 위험선호심리 확대 국면
- 미국 증시, 4월 안도랠리 구간에서 역사적 사상 최고치 경신 지속할 것. 추가 상승 기대 요인 다분
- 21일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 후보자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 예정. 이란 전쟁 종전 수순 감안 시 표결 통과 가능성

문남중. namjoong.moon@daishin.com

Commodity

곡물 가격 반등을 방해할 엘니뇨의 귀환

- 호르무즈 해협 봉쇄 풀린다면 순식간에 무너질 비료발 농산물 공급 차질 논리
- 주요 곡창 지대에 강수량 개선시킬 엘니뇨의 귀환, 신곡 수확 가이던스↑ 가능
- 수요 역시 마찬가지로 반등 명분 부족, 내년 1/4분기까지 곡물에 대한 중립 유지

최진영. jinyoing.choi@daishin.com

산업 및 종목 분석

[1Q26 Preview] 자화전자: 1Q, 깜작실적 예상!

- 1Q26 매출(2,603억원)과 영업이익(256억원)은 깜작 실적을 예상
- 북미향 액츄에이터(OIS) 매출 증가 및 점유율 확대로 분석
- 2026년 처음으로 1조원 매출을 상회 예상, 영업이익도 최고 추정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1Q26 Review] LS 에코에너지: 1Q 호실적, 성장(희토류, 해저케이블) 가시화!

- 1Q26 매출과 영업이익은 29.8%(yoy), 31%(yoy) 증가, 호실적
- 고부가인 초고압 전선 매출 증가로 수익성 호조가 확대
- 2026년 희토류 사업의 가시성 확대 전망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1Q26 Preview] 삼성중공업: 기다림의 끝, 증명이 시작되는 2분기

- 2도크 재가동효과와 팍스오션 생산 투입 효과는 2분기부터 본격화
- FLNG, 셔틀탱커 등 비교적 높은 수익성의 선종들의 수주 기대
- 미국 내 여러 사업체들과의 현지 파트너쉽으로 미국 사업 확장 기대

이지니. Jinni.lee@daishin.com

[1Q26 Preview] 한화오션: 상선의 견인으로 성장

- 2026년 1분기 매출액은 3조 4,662억원, 영업이익 3,517억원 전망
- 상선 부문은 우호적인 환율 환경 및 수요 상승으로 이익 견조
- 다만 특수선은 비용 증가 해양은 고정비 부담으로 이익 기여 미미

이지니. Jinni.lee@daishin.com

Strategy

Strategist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다음주 시장은?

종전 방향성 확인.
PER 8배(6,600선) 향하는 KOSPI

- KOSPI, 지정학적 리스크에 가려졌던 실적 반영 중. 선행 PER 8배 = 6,600p
- 한편, 21일 공개되는 한국 20일 수출도 주목, KOSPI와 상간관계 0.7 이상
- 이번주는 본격적인 실적시즌 돌입. 특히, 23일 SK하이닉스 실적 결과 중요

종전 방향성 확인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세 뚜렷. 1차 협상이 결렬되었지만, 종전 협상이 진행 중임이 확인되었고,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핵 협상에 있어서도 20년(미국)과 5년(이란)이라는 조건이 제시되면서 종전 합의/타결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 WTI 국제유가는 90달러 초반으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달러화도 각각 4.2%, 98p 수준으로 내려앉음. 원/달러 환율과 국고채 10년물 또한 각각 1,470원선, 3.3%대로 하향 안정

미국과 이란 간 이해득실이 맞아떨어짐에 궁극적으로 종전 합의/타결이라는 방향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기존 의견 유지. 핵심 관건인 호르무즈 해협의 공급망 정상화 여부는 더디기는 하지만, 선박 이동이 증가하면서 불확실성 완화

다음주 미국 3월 소매판매 발표 예정

전월대비 1.2% 증가(2월 0.6%)가 예상되지만, 에너지 가격 상승 영향. 자동차, 가스 등을 제외한 소매판매는 0.2% 증가에 그치며 2월 0.5%대비 둔화. 실질 소매판매가 얼마나 선방하는지 여부가 관건. CPI도 에너지 물가 레벨업이 여타 품목으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실질 소매판매가 견조하다는 미국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빠르게 완화될 전망

한편, 21일 공개되는 한국 20일 수출도 주목

KOSPI 일평균 수출 금액과 KOSPI 간의 상관관계 0.7 이상. 20일 일평균 수출액이 사상최고치를 경신한다면 KOSPI 상승 탄력에 힘이 실릴 것. 10일까지 수출 증가율은 36.7%로 전체, 반도체 수출 동시에 수출액 기준 사상 최대 금액 경신. 반도체 수출은 연이어 100%(전년대비) 이상 급증

이번주는 본격적인 실적시즌 돌입

특히, 23일 공개가 예정된 SK하이닉스 실적 결과 중요.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서프라이즈 이후 26년 1분기 영업이익 전망 40조원 수준까지 레벨업. 40조원 상회 여부가 관건.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까지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 KOSPI 분기/연간 실적 전망과 선행 EPS 레벨업으로 KOSPI 밸류에이션 매력과 모멘텀 강화 기대가 배가될 전망. 한편, 예상치 하회할 경우 단기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지만, 비중확대 기회. 실적 개선 방향성은 명확하기 때문

KOSPI 6,200선 돌파에도 불구하고 선행 PER은 7.55배 수준에 불과

선행 EPS가 824.6p까지 레벨업된 영향(3월말 666.6p). 선행 PER 8배는 6.600선. 사상 최고치 경신 이후에도 KOSPI는 여전히 Deep Value 구간. 현재 KOSPI는 실적과 펀더멘털 간의 괴리가 크게 확대된 상황. 당장 경기가 악화되거나, 실적 전망이 급격히 하향조정되는 경우만 아니면 밸류에이션 정상화에 근거한 비중확대 전략 유효. 단기 급반등(1,188p 상승, 상승률 23% 상회) 이후 종전협상 과정에서 노이즈와 경제지표, 실적 결과에 따른 단기 과열해소, 매물소화 과정은 비중 확대 기회. 수출주(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와 성장주(2차전지, 인터넷, 제약/바이오)에 집중하는 전략 유지

Strategy

코스피 33 거래일 만에 6,200선 회복, 위험자산 선호 확대

- 지정학 리스크 완화와 금융 불안 우려 진정 속 위험자산 선호 강화
- TSMC 호실적과 AI 수요 기대감으로 반도체 투자심리 견조
- 위험자산 선호심리 확대되는 가운데, 업종별 순환매 양상

Strategist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지정학 리스크 완화와 금융 불안 우려 진정 속 위험자산 선호 강화

그동안 산재해 있던 불확실성 요인들이 하나둘씩 완화되며, 위험자산 선호 강화

헤즈볼라의 정치위원회 부위원장이 이스라엘과의 휴전에 동의한다고 밝힘. 트럼프 대통령도 이스라엘 및 레바논 정상들과 16일(현지시간) 회담할 예정이라고 언급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휴전이 성사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면서, 시장은 이란 사태를 둘러싼 지정학 불확실성이 완화/해소될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

한편, 다이먼 CEO는 사모신용 부문에서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은행권이 즉각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힘

최근 사모대출 부실 리스크에 대해 꾸준히 경계감을 보여 왔던 다이먼 CEO의 완화적인 발언 역시 투자심리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

TSMC 호실적과 AI 수요 기대감으로 반도체 투자심리 견조

TSMC는 1분기 매출로 1조 1,1341억 대만달러(YoY +35.1%), 순이익 5,724.8억 대만달러(YoY +58.0%)를 기록하며 견조한 실적을 발표

TSMC는 AI 수요 확대에 따른 가격 상승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공급 측면에서는 2027년까지 수급 여건이 매우 타이트할 것이라고 밝힘.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만과 미국 애리조나, 일본에서 팹 증설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

이번 실적과 가이던스는 반도체 업계의 공급 제약과 가격 상승 흐름이 여전히 유효함을 시사하며, 반도체 업종의 실적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한편, 테슬라는 자체 인공지능 반도체 칩인 'AI5'의 설계를 마쳤다고 밝혔고, 이 과정에서 생산에 도움을 준 삼성전자에 감사를 표함

반도체: 삼성전자(+3.1%), SK하이닉스(+1.7%), 피에스케이홀딩스(+8.9%)

위험자산 선호심리 확대되는 가운데, 업종별 순환매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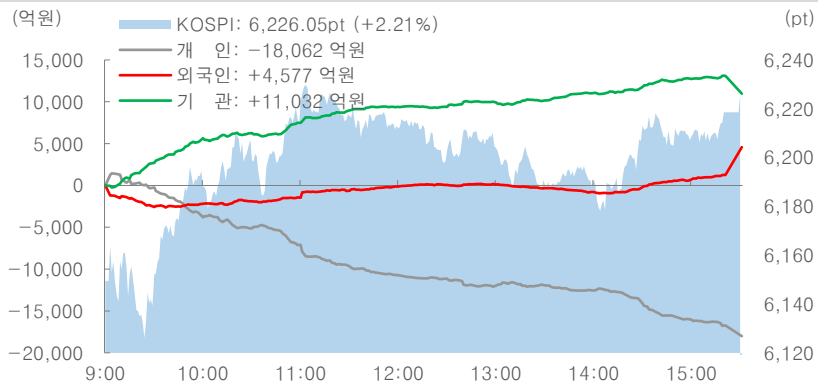
AACR 앞두고 연구 성과 발표 기대감에 제약/바이오 일제히 상승

자동차: 현대차(+5.1%), 기아(+4.2%), 현대모비스(+2.8%)

IT서비스: 삼성에스디에스(+6.9%), NAVER(+3.6%), 카카오(+2.0%)

백화점/소매(유통): 롯데쇼핑(+13.3%), 신세계(+8.7%), 이마트(+6.0%)

KOSPI 투자주체별 수급 및 장중흐름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Global Strategy

Global Strategist 문남중
namjoong.moon@daishin.com

굿바이! 전쟁. 미국 증시가 견인하는 안도랠리 국면

- 현 미국-이란 종전 합의 수순. 21일 전, 트럼프 종전 공식 발표할 것
- 미국 증시, 4월 안도랠리 구간에서 역사적 사상 최고치 경신 지속할 것
- 21일 차기 연준 의장 후보자 상원위원회 청문회 예정. 표결 통과 가능성

현재 미국-이란 종전 합의 수순. 21일 전, 트럼프 종전 공식 발표할 것. 위험선호심리 확대 국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이란 간 휴전(4.7~21일)은 종전이라는 암묵적 합의 아래,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과정이다. 종전 결렬 가능성은 상당히 낮으며, 현 이란 전쟁이 트럼프 행정부의 종전 타임라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22일 이스라엘 건국 기념일(종전 시, 트럼프 대통령 이스라엘상 수상 예정), 27~30일 찰스3세 영국 국왕의 방미 일정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2주간 휴전이 끝나는 21일 전에 전쟁 종전을 공식 발표할 것이다. 3월 말을 기점으로 종전 낙관론에 기댄 위험선호심리가 4월 증시의 안도랠리를 지속시키는 힘이 될 것이다.

미국 증시, 4월 안도랠리 구간에서 역사적 사상 최고치 경신 지속할 것

종전 낙관론이 부각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약화로 달러인덱스는 하락하고, 미국 증시(S&P500)는 전쟁 악재를 극복하며 4.15일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제부터는 각 국 증시간 상대적 상승폭을 잣대로 삼지 말고, 증시 향방의 윤곽을 전적으로 좌우하는 미국 증시의 상징성을 주목할 시점이다. 앞으로 미국 증시의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요인들은 1) 경기 확장 국면(26.2월 기준, 70개월째 경기확장 중. NBER), 2) 26.1/4분기 어닝시즌 진입, 기업 실적 전망치 상향조정(S&P500 12개월 선행 EPS 증가율 +13.0%. 25.12월 말 +12.8%), 3) 낮아진 주가수익비율(S&P500 12개월 선행 PE 20.4배. 5년 평균 19.9배 수렴), 4)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임명 시), 완화적 통화정책 무게, 5) 전쟁 종전 이후, 당장은 아니더라도 연말로 갈수록 유가 하락 기대 증가와 이에 연동되는 단기 기대인플레이션 안정 등 다분하다.

21일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 후보자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 예정. 이란 전쟁 종전 수순 감안 시 표결 통과 가능성

21일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 후보자의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상원 은행위원회(총 24명. 공화당 13명, 민주당 11명)는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지만, 공화당에서 반대표가 한 표라도 나오면 표결 통과가 불투명해진다. 이로 인해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수사 중단 없이는 차기 연준 의장 후보자를 인준하지 않겠다는 톰 틸리스 상원의원의 마음을 돌리는게 관건이다. 연준 독립성 훼손이 명분이었지만, 이란 전쟁 발발도 자연스럽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발심에 민주당 위원들에게도 추가 명분이 됐다. 전쟁 종전을 앞두고 있는 현 국면과 상황에 따라서는 앞서 별도의 정치적 협상을 통해 톰 틸리스 상원의원과 민주당 일부 위원이 인준 동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인준이 늦어질 수 있겠지만, 캐빈 워시가 차기 연준 의장에 취임하게 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 캐빈 워시는 이념적 매파가 아닌 인물로, 현 트럼프 행정부의 금리 인하 요구에 보다 수용적인 입장을 보일 것이다.

Commodity

곡물 가격 반등을 방해할 엘니뇨의 귀환

Commodity Analyst 최진영
jinyoing.choi@daishin.com

- 호르무즈 해협 봉쇄 풀린다면 순식간에 무너질 비료발 농산물 대란 논리
- 주요 곡창 지대에 강수량 개선시킬 엘니뇨의 귀환, 수확 가이던스↑ 가능
- 수요 역시 마찬가지로 반등 명분 부족, 내년 1/4 분기까지 중립 의견 유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린다면 순식간에 무너질 비료발 농산물 대란 가능성

농산물 대란 가능성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로 전 세계 비료(질소계 비료) 수출의 30%가 차단된 가운데 봄밀과 옥수수(북반구)의 파종 시즌이 도래했기 때문이다. AFBF(미 농업 개량 연맹) 서베이에서는 미국 내 농가 중 70%는 비료를 구매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소계 비료 가격 상승률은 식품 CPI를 6개월 선행한다. 곡물 공급에 대한 전망이 악화(신곡 수확 가이던스↓ 또는 작황 우수등급↓)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순간이다.

그러나 지난 자료 〈단기에 그칠 이란 전쟁, 다시 재개될 원자재 내 순환매(4/10)〉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도한 비관론은 지양한다. 미국과 이란은 종전을 위한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예단하기 어렵지만 당사의 기존 시나리오대로 단기(4월 중, 늦어도 5월 중순 이전) 내 전쟁이 종식된다면 비료 수출의 빠른 정상화가 가능하다. LNG 수출까지 재개된다면 천연가스를 원료로 삼는 질소계 비료 가격은 한층 더 빠르게 안정될 수 있다. 지금 농산물 대란을 고민하는 것은 시기 상조이다.

주요 곡창 지대에 강수량 개선시킬 엘니뇨의 귀환, 수확 가이던스 상향 가능

특히, 엘니뇨의 귀환은 수확 가이던스를 상향시킬 요인이다. 엘니뇨란 적도를 기준으로 무역풍(서태평양향)의 이동 속도가 둔화될 때 발생한다. 기류는 라니냐 때와 달리 동태평양(또는 중앙태평양) 부근에 집중 형성되는데 주요 곡창 지대(미국 중부, 브라질 서남부, 아르헨티나 전역)가 인접한 동태평양 연안의 강수량이 높아(따듯한 해수 유입)지고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 높아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엘니뇨가 곧 수확량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NOAA(미 연방해양대기청)에 따르면 현재 동태평양 연안 해수면 온도는 평년대비 0.2℃로 중립이지만 5~7월부터는 0.5℃ 높은 엘니뇨로 전환될 것이라 예보됐다. IRI 측의 모델상으로는 올 연말까지 평년보다 1.5℃ 높은 슈퍼 엘니뇨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까지 슈퍼 엘니뇨가 출현했던 때는 2023년 5월~2024년 4월과 2014년 11월~2016년 4월로 이 시기 때 곡물 지수는 어김없이 부진했다. 이번에도 상단이 다시 한번 막힐 수 있다.

수요 역시 마찬가지로 반등 명분 부족, 내년 1/4 분기까지 중립 의견 유지

그러한 점에서 곡물 섹터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한다. 단기에 그칠 지정학 리스크와 진정될 비료 가격, 그리고 엘니뇨의 귀환은 곡물에 대한 기대감을 소멸시키기 충분하다. 공급과 마찬가지로 수요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 1)바이오 에탄올향 수요는 유가가 본격 상승(올해 4/4분기)하기 전까지는 횡보할 수밖에 없다. 2)사료향 수요를 9개월 선행하는 중국 양돈 농가 마진 역시 연말까지 부진할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공급과 수요 모두 반등의 명분은 부족하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곡물 섹터에 대한 보수적인 접근을 권고하며 내년 1/4분기까지 중립 의견을 유지한다.

Earnings P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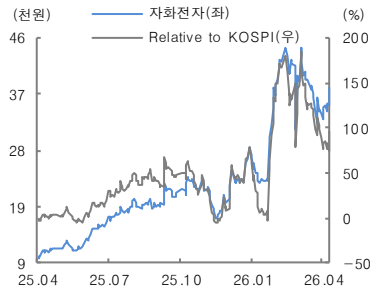
자화전자 (033240)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RA서지원
jiwon0.seo@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50,000 상향
현재주가 (26.04.16)	35,200
	가전 및 전자부품업종

KOSPI	6226.05
시가총액	821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2%
자본금(보통주)	11십억원
52주 최고/최저	44,400원 / 11,14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86억원
외국인지분율	16.08%
주요주주	김상면 외 3 인 36.87%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5.9	69.6	62.7	241.1
상대수익률	-16.2	31.9	-2.0	34.1



1Q, 깜작실적 예상!

- 1Q26 매출(2,603억원)과 영업이익(256억원)은 깜작 실적을 예상
- 북미향 액츄에이터(OIS) 매출 증가 및 점유율 확대로 분석
- 2026년 처음으로 1조원 매출을 상회 예상, 영업이익도 최고 추정

투자의견 매수(BUY) 유지, 목표주가 50,000원 상향(11.1%)

2026년 1Q 매출은 2,603억원(61.5% yoy/-1.4% qoq), 영업이익은 256억원(408% yoy/-4.2% qoq)으로 종전 추정을 큰 폭으로 상회할 전망. 2026년, 2027년 주당순이익(EPS)을 종전대비 각각 39.8%, 17.4%씩 상향하여 목표주가도 50,000원(2026년 주당순이익(EPS) X 목표 P/E 16.1배 적용, 실적 호조 구간의 평균)으로 상향(11.1%). 북미 전략거래선의 프리미엄 모델에서 판매 증가가 예상을 상회, 또한 고객사내 점유율 증가가 동반되면서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 1Q 기준으로 최고 매출을 예상 및 2026년 최고 실적을 전망. 투자 포인트는

2026년 매출(1조원)과 영업이익(833억원)은 역대 최고를 예상

1Q26년 메모리(디램 및 낸드) 가격 상승으로 스마트폰 업체는 신모델의 생산 확대에 어려움에 직면. 반면에 북미 전략거래선은 브랜드 우위 및 제한적인 가격 인상 수준을 유지한 결과 상대적으로 교체 수요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 또한 우호적인 원달러 환율 영향으로 영업이익률(9.8%)은 큰 폭의 개선을 예상

2026년 연간 매출(1.01조원 19.8%(yoy))은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영업이익은 833억원(98.4% yoy)으로 역대 최고를 예상. 북미 전략거래선내 점유율 증가, 그리고 프리미엄 모델의 판매 비중 증가 속에 교체 수요가 확대되면서 OIS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 예상. 2026년 수량(Q) 증가가 예상된 시기로 판단

2026년 휴머노이드향 매출 가시화가 진행

2026년 휴머노이드 및 로봇 분야에서 가시화된 매출을 예상. LG이노텍과 협력으로 북미의 순수 전기자동차 업체에 공급할 예정. 엔코드 타입에서 독립적인 기술 및 다수의 빅테크 고객 보유로 경쟁력이 우위. 휴머노이드(로봇) 관절에서 구동계가 중요한 역할. 휴머노이드 분야로 포트폴리오 다각화 추진

(단위: 십억원, %)

구분	1Q25	4Q25	1Q26(F)					2Q26		
			직전추정	당사추정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161	264	194	260	61.5	-1.4	194	207	23.3	-20.5
영업이익	5	27	8	26	408.0	-4.2	8	9	흑전	-63.5
순이익	5	34	5	20	289.6	-41.5	5	7	흑전	-64.3

자료: 자화전자,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24A	2025A	2026F	2027F	2028F
매출액	681	849	1,017	1,015	1,112
영업이익	45	42	83	79	87
세전순이익	20	44	82	78	87
총당기순이익	17	47	67	64	71
지배지분순이익	17	47	67	64	71
EPS	750	2,150	3,107	2,955	3,287
PER	15.7	12.0	11.3	11.8	10.6
BPS	18,078	20,286	23,658	26,647	29,937
PBR	0.7	1.3	1.5	1.3	1.2
ROE	4.3	11.2	14.1	11.7	11.6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자화전자,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Result Comment

LS에코에너지 (229640)

1Q 호실적, 성장(희토류, 해저케이블) 가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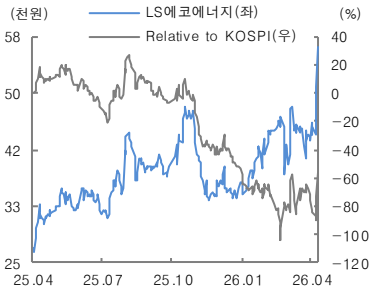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RA서지원
jiwon0.seo@daishin.com

- 1Q26 매출과 영업이익은 29.8%(yoy), 31%(yoy) 증가, 호실적
- 고부가인 초고압 전선 매출 증가로 수익성 호조가 확대
- 2026년 희토류 사업의 가시성 확대 전망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62,000 상향
현재주가 (26.04.16)	56,500
	가전 및 전자부품업종

KOSPI	6226.05
시가총액	1,730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05%
자본금(보통주)	15십억원
52주 최고/최저	56,500원 / 30,6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99억원
외국인지분율	6.79%
주요주주	LS전선 외 5 인 64.36% 국민연금공단 6.04%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26.7	51.5	29.1	79.9
상대수익률	12.9	17.8	-22.3	-29.3



투자의견 매수(BUY) 유지, 목표주가 62,000원 상향(19.2%)

2026년 1Q 매출(2,964억원)과 영업이익(201억원)은 전년대비 각각 29.8% (19.2% qoq), 31%(53.6% qoq)씩 증가, 컨센서스대비 17%, 18.2%씩 상회 등 예상 상회한 호실적을 기록. 투자의견은 매수(BUY)유지, 목표주가는 62,000원 (2026년 EPS X 목표 P/E 34배 적용)으로 상향(19.2%). 2026년 주당순이익 (EPS)을 종전대비 7.3% 상향, 그리고 신성장인 희토류 및 해저케이블 사업은 2026년 하반기 가시화되면서 밸류에이션 확대로 연결될 전망

1Q26에 고부가인 초고압 케이블 매출은 177%(yoy) 증가, 수익성 견인

2026년 1Q에 호실적의 배경은 LS-VINA의 초고압 케이블, 소재 매출 증가가 예상을 상회. LS VINA 매출은 2,025억원으로 23.2%(yoy) 증가, 수익성 좋은 초고압 케이블 매출(322억원 177% yoy)은 고부가 PJT 수주 확대, 덴마크향 수출 지속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 달성, 영업이익이 증가가 높음. 소재부문에서 직판 물량 증가 및 동 가격 상승에 따른 신규 판가 적용으로 수익성도 개선

희토류 사업은 2027년 매출 예상

신성장 사업(희토류, 해저케이블)은 2026년 하반기에 가시화될 전망. 희토류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라이너스(Lynas)와 파트너쉽 계약을 체결. 안정적으로 원료 공급을 받아서 2027년 희토류 금속을 생산할 계획. 또한 해저케이블은 베트남 PTSC와 JV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희토류 및 해저 케이블은 베트남 기업과 전략적인 제휴로 글로벌 수요 확대에 대응. 2027년 매출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

(단위: 십억원, %)

구분	1Q25	4Q25	1Q26					2Q26		
			직전추정	잠정치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228	249	232	296	29.8	19.2	253	294	17.7	-0.7
영업이익	15	13	16	20	31.0	53.6	17	19	-17.4	-3.0
순이익	11	5	11	13	13.0	153.8	12	14	-15.4	6.2

자료: LS에코에너지,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

	2024A	2025A	2026F	2027F	2028F
매출액	869	960	1,193	1,256	1,267
영업이익	45	67	75	76	77
세전순이익	48	61	72	73	74
총당기순이익	35	48	55	56	57
지배지분순이익	31	42	50	52	53
EPS	1,020	1,374	1,643	1,708	1,720
PER	30.4	25.2	30.8	29.6	29.4
BPS	5,989	6,831	8,226	9,687	11,160
PBR	5.2	5.1	6.2	5.2	4.5
ROE	19.0	21.4	21.8	19.1	16.5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LS에코에너지,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Earnings Preview

삼성중공업 (010140)

기다림의 끝, 증명이 시작되는 2분기

- 2도크 재가동효과와 팍스오션 생산 투입 효과는 2분기부터 본격화
- FLNG, 셔틀탱커 등 비교적 높은 수익성의 선종들의 수주 기대
- 미국 내 여러 사업체들과의 현지 파트너쉽으로 미국 사업 확장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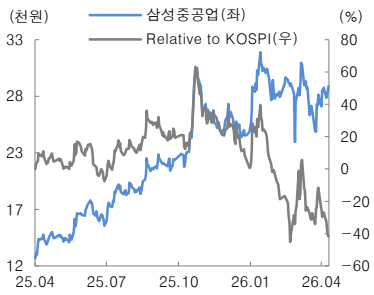
이지니

jini.lee@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40,000 상향
현재주가 (26.04.16)	28,700 조선업종

KOSPI	6226.05
시가총액	25,256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76%
자본금(보통주)	880십억원
52주 최고/최저	31,850원 / 13,99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593억원
외국인지분율	32.65%
주요주주	삼성전자 외 7 인 20.85% 국민연금공단 7.98%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0.2	-3.5	28.7	98.1
상대수익률	-11.0	-25.0	-22.5	-22.1



투자의견 매수 유지, 목표주가 40,000원으로 상향하며 최선호주로 제시

목표주가 산정은 2027F EPS 1,724원에 Target PE 21.3x 적용. 2027년부터 2도크 재가동 효과가 Fully 반영되고 FLNG 의미있게 반영되기 때문이며, 미국과의 협업 및 방산 사업 시작으로 PE 18x에 30% 할증

2026년 1분기 매출액은 3조 805억원(+23.5% YoY, +8.5% QoQ), 영업이익은 3,161억원(+156.8% YoY, +6.7% QoQ, OPM 10.3%)로 전망. 2도크 재가동 효과가 2분기 이후에 반영 및 팍스오션 생산 투입 효과는 2분기를 기점으로 본격화 될 예정. 2도크 가동 시 VLEC, 셔틀탱커와 같은 높은 이익률의 선박을 위주로 배치하고 Suezmax 등은 협력 조선소에서 건조할 예정

1분기 흑자전환, 동박 중심 수주 모멘텀 기대

동사는 ZLNG, Cedar, Coral 등을 동시 생산 중에 있어 FLNG의 실적 반영 시기는 2027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 협의중인 Delfin의 FID는 1~2월 중 발생한 파이프라인 화재사고로 계약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상반기 내 계약 체결을 목표로 두고 있음. 캐나다 웨스턴 FLNG는 4분기 중 수주를 위한 협의 진행 중. 중동 지역의 가스 공급 불안에 따른 미국발 LNG 수요 확대는 LNGC 운임 상승과 톤마일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FLNG 수요는 굳건하다고 판단

셔틀탱커 역시 수주에 긍정적이라고 판단. 현재 전쟁으로 인해 오일 탱커 운임이 올라있기 때문에 바로 투자로 이어져 수요는 우호적인 상황. 글로벌 셔틀탱커 건조 조선소는 동사와 중국의 Wison 조선소이기 때문에 경쟁사는 비교적 적은 상황

미국 사업, 아직은 기대 뿐이지만 희망차다

동사의 미국 사업은 세 개 축으로 전개 중 1)NASSCO와의 NGLS 협력으로 개념설계 진행중, 27년 3월 도면 제출, 최종결정은 연말 예상. 2)Vigor Marine Group과의 미 함정 MRO 사업, 3) Conrad사와의 LNG 벙커링선 협력은 루이지애나 FLNG 가동 이후 급증할 벙커링 수요와 연결됨. 미 군함 관련 법 개정 현실화와 성과가 병행될 경우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

	2024A	2025A	2026F	2027F	2028F
매출액	9,903	10,650	12,617	14,177	15,133
영업이익	503	862	1,564	2,192	2,612
세전순이익	-316	650	1,116	1,997	2,535
총당기순이익	54	536	848	1,518	1,926
지배지분순이익	64	546	848	1,518	1,926
EPS	73	620	964	1,724	2,189
PER	155.7	38.9	29.2	16.3	12.8
BPS	4,311	4,714	5,498	7,064	9,113
PBR	2.6	5.1	5.2	4.1	3.1
ROE	1.8	13.7	18.9	27.5	27.1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삼성중공업,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한화오션 (042660)

상선의 견인으로 성장

이지니
jinilee@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164,000
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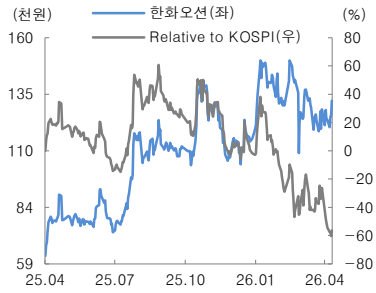
현재주가 131,900
(26.04.16)

조선업종

- 2026년 1분기 매출액은 3조 4,662억원, 영업이익 3,517억원 전망
- 상선 부문은 우호적인 환율 환경 및 수요 상승으로 이익 견조
- 다만 특수선은 비용 증가, 해양은 고정비 부담으로 이익 기여 미미

KOSPI	6226.05
시가총액	40,416십억원
시가총액비중	1.22%
자본금(보통주)	1,537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49,900원 / 73,1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3,060억원
외국인지분율	11.16%
주요주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외 1 인 37.68% 한국산업은행 15.25%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0.0	-10.3	20.9	70.6
상대수익률	-10.9	-30.2	-27.2	-32.9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64,000원으로 -8.9% 하향

목표주가는 2028F EPS 6,852원에 Target Multiple 23.4x 적용. EPS 하향은 이익 추정 구간을 2027년에서 2028년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도달 가능한 이익 레벨 재산정에 기인함

상선 이익은 꾸준히 상승 중

2026년 1분기 매출액은 3조 4,662억원(+10.3% YoY, +4.3% QoQ), 영업이익 3,517억원(+36.0% YoY, +42.0% QoQ, OPM 10.1%)로 전망. 2026년 수주 목표는 연간 약 40척 기준 LNGC 20척 확보 후 VLCC, 컨테이너선을 수주하길 선호. 우호적인 환율 환경으로 VLCC의 이익률도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중

1Q 특수선과 해양은 다소 아쉬움

[특수선] 이번 분기에 매출에는 장보고Ⅲ-배치2 2번함과 울산함 배치3 5·6번함이 반영될 예정이지만 수상함의 이익률은 낮은 수준으로 이익 기여는 미미함. 특히 지난 해 캐파 증설 및 인력 충원에 따른 고정비 증가 및 해외 마케팅 관련 일회성 비용이 발생해 BEP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 [해양] 동사는 올해 FPSO 2기 수주를 목표로 입찰을 진행 중이나 아직까지는 대형 공사가 없는 상황이기에 2026년은 고정비 부담이 불가피 할 전망

(단위: 십억원, %)

구분	1Q25	4Q25	1Q26(F)					2Q26		
			직전추정	당사추정	YoY	QoQ	Consensus	당사추정	YoY	QoQ
매출액	3,143	3,323	3,536	3,466	10.3	4.3	3,291	3,597	9.2	3.8
영업이익	259	248	383	352	36.0	42.1	377	431	16.1	22.7
순이익	216	612	326	265	22.8	-56.8	298	329	121.3	24.1

자료: 한화오션, FnGuide,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24A	2025A	2026F	2027F	2028F
매출액	10,776	12,784	14,017	15,514	18,045
영업이익	238	1,168	1,524	1,942	2,443
세전순이익	181	842	1,441	2,059	2,688
총당기순이익	528	1,246	1,153	1,647	2,150
지배지분순이익	528	1,246	1,153	1,647	2,150
EPS	1,724	4,066	3,762	5,377	7,017
PER	21.7	27.9	34.0	23.8	18.2
BPS	15,858	20,137	23,703	28,906	35,766
PBR	2.4	5.6	5.6	4.6	3.7
ROE	11.5	22.6	17.2	20.4	21.7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한화오션,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